



60년사 편찬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홍영표 전 대한결핵협회장, 김성진 전 결핵연구원장, 김상재 전 결핵연구원장.

지나해 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나온 60년을 넘어 앞으로의 60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60년을 돌아보고 이를 거울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 협회의 역사이자 우리나라 결핵의 역사이기도 한 기록을 책으로 남기고자 60년사 편찬위원회가 결성됐다.

우리나라 결핵사에 한 획을 그은 원로들로 구성된 6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김성진 전 결핵연구원장이 맡았으며, 위원으로 김상재 전 결핵연구원장과 홍영표 전 대한결핵협회장, 진병원 원장, 박종달 전 부회장, 최형 전 국장이 참여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지난 3월 18일, 김성진 전 결핵연구원장과 김상재 전 결핵연구원장, 홍영표 전 대한결핵협회장이 만나 지난날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았다.

협회가 걸어온 60년을 함께한 사람들 60년사 편찬위원들과의 동행

글_박연숙(본부 홍보기금과)

세 사람의 인연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성진 원장, 김상재 원장, 홍영표 회장, 그리고 또 다른 위원으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진병원 원장, 박종달 전 부회장. 모두 함께 일하던 그 시절이 정말 즐겁게 일하던 시절이었노라고, 이제는 전성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 여유롭고 따뜻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백발이 성성한 원로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1965년 김성진 전 원장이 협회 중앙검사소 소장으로 일할 시기,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고 김대규 전 부회장의 소개로 김상재 원장을 만났다. 그리고 김상재 원장이 WHO 펠로우로, 인도, 일본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원으로 해외를 돌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 학교로 가기로 결정하고 김성진 원장을 만나기 위해 들른 협회에서 소위 ‘발목’이 잡혔다. 1977년 다시 협회에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홍영표 회장이 이미 협회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미 홍영표 회장은 ‘결핵트리오’라 불리며 학계 인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대학 교수로 갈 기회를 마다하고 결핵협회의 일원이 되었다.

“의사로서 임상만 하다가 협회에 와서 국가결핵관리 사업을 주도해 나가는데,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 일이 즐거워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일했지. 전국 각지를 돌며 결핵환자 퇴북시키고, 보건소 점검이며 요원교육 하는 일이 너무도 즐거웠어.”

옛 이야기를 하는 홍 회장의 눈빛이 빛난다. 홍영표 회장은 예과 2학년이던 1953년 결핵을 앓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약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으로 스트렙토마이신, 아이나, 파스를 한 가지씩 차례대로 썼는데 모두 내성. 61년에 폐절제 수술을 받고서야 결핵이 완치되었다.

김상재 원장 또한 결핵을 앓았다. 대학시절이었던 1962년 ROTC 2기로 들어가기 위해 받았던 신체검사에서 결핵 판정을 받아 약 1년 간의 치료 끝에 치료를 마쳤는데, 협회에 와서 또 한 차례 결핵을 앓기도 했다. 당시 동물실험을 많이 했는데, 결핵균을 직

접 다루는 분야의 직원들은 결핵을 앓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결핵은 흔한 병이었어요. 하지만 약이 귀하고 턱없이 비쌌지. 스트렙토마이신 1병이 쌀 한 가마 값이었다고. 그러니 결핵을 오래 앓으면 폐가 망신 한다고 할 정도였지.”

그렇던 이 나라가 결핵관리의 선진 사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듯했다.

“결핵사업을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나라의 경제도 정말 어려웠어, 우리의 유일한 보급처는 유니세프였어요. 결핵사업을 위한 시설 전부, 연구원 기반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닥터 WHO의 고문관으로 있던 JC 타오가 WHO의 권고안을 제대로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 모범 사례였죠. WHO, 국가적 지원, 함께 일하는 사람, 세 박자가 맞아 즐겁게 일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모두 돈 많이 받고, 대학 교수로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박봉이지만 오직 신념 하나로 일했어요. 이를 ‘희생’이 아닌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6.25 한국전쟁 중에 평양에 있는 27육군병원에 있을 때 ‘도와 달라’는 부탁 한 마디가 평생 결핵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분원에서 결핵 진료만 하다가 광주 제중병원에서 기흉, 기복을 했다. 그리고 중앙검사소장으로 협회의 일원이 된 후 1965년 시작되어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했던 결핵 실태 조사를 주도한 이가 바로 김성진 원장이다.

지나간 시절은 모두 추억이 되었다. 돌아보면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다는 세 사람. 이제 협회의 60주년을 정리하는 일에 마지막 열정을 보태고, 일평생 함께한 결핵을 소회하며, 기억과 추억 그리고 사실을 차곡차곡 정리해, 11월 즈음 대한결핵협회 60년사를 세상 밖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